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김진한*

[국문초록]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11년조에 실린 「답설인귀서」는 국내에 독자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외교문서로써 신라의 대당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특히 「답설인귀서」에 전하는 김춘추와 당 태종의 밀약 관련 내용은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의 정당성과 신라·당 전쟁의 원인이 당의 약속위반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밀약내용에 신뢰를 두는 한국학계와 달리 중국이나 일본학계에서는 사료로 인용하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특히, 중국학계에서는 당 태종이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춘추의 청병에 전쟁 이후의 문제까지 상의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구나 밀약과 관련한 내용이 중국측 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며, 당의 고구려 및 백제 정토는 국제관계전략에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주제어: 「답설인귀서」, 신라, 당, 밀약, 김춘추, 당 태종, 문무왕

『Dapseolinguiso』, Silla, Tang, secret agreement, Kim chun chu, Tang Tai-tsung, King Mun-Mu

따라 진행된 기미정책이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밀약 관련 내용은 문무왕이 자기 변호를 위해 꾸며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중국학계가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구당서』에 밀약 내용을 뒷받침해 줄만한 사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도침이 유인귀에게 보낸 사행을 통해 늦어도 661년 무렵에는 신라와 당이 밀약을 맺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벌하려 한 전략은 당 태종대 세워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중국학계의 주장처럼 671년에 문무왕이 백제고지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밀약을 맺은 시점과 관련해 647년에 김춘추가 사행을 간 것으로 보고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김춘추의 입당시기도 『삼국사기』 찬자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당 태종이 648년에 지은 온탕비나 새로 편찬된 『진서』를 주었음을 고려할 때, 입당시기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김춘추는 648년 12월에 입당하여 당 태종을 만난 뒤, 밀약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머리말

『삼국사기』에는 7세기 삼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전쟁과 관련해 외국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두 통의 외교문서가 실려 있다. 671년 신라·당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치신라왕서」(致新羅王書)와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답한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가 그것이다. 이 두 통의 서신 가운데 「답설인귀서」에 흔히 ‘나당밀약설」(羅唐密約說)이라고 부르는 김춘추와 당 태종 간의 밀약과 관련된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밀약 관련 기사는 백제 멸망 이후 백제고지(百濟故地)를 둘러싼 신라·당의 영유문제와 연관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학계에

서는 당이 백제고지에 5도독부를 두어 직접적인 통치를 실시하려 하였으며 이는 648년 ‘나당밀약’에 대한 당의 위반¹⁾으로 양국간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백제영토의 신라 할양이라는 협약을 무시하고 당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처리하였으며 신라마저 계림도독부로 삼아 당의 기미 지배 아래 두려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신라·당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중국학계에서는 밀약을 문무왕이 백제고지 점령을 변호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면서 백제영토에 대한 당의 전후처리는 기미정책에 따라 합당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한다.²⁾ 일본학계에서는 밀약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670년에 신라가 옛 백제영토를 침략한 것으로 서술하거나³⁾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을 665년의 서맹(誓盟)을 어긴 것으로 보았다.⁴⁾ 대체로 신라·당 전쟁의 원인을 신라쪽에서 구하고 있다.

밀약 관련 기사는 백제고지를 둘러싼 신라·당의 영유문제를 넘어 신라의 삼국통일과 연관한 논의로도 이어졌다.⁵⁾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당을 끌어들이었지만 외세인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냄으로써 영토적으로 불완전하나마 삼국통일을 이루었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

-
- 1) 임병태(1977), 『新羅의 三國統一』,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pp. 525-526.; 李基白·李基東(1982),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pp. 298-299.; 김영하(1988),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한길역사강좌 12韓國古代史論』, 한길사, pp. 216-217.; 박현숙(2002),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pp. 241-242.; 李昊榮(2007),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月山 李昊榮의 韓國史學 遍歷』, 書景文化社, pp. 114-116.; 노태돈(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p. 245.; 김영관(2010), 『취리산회맹과 당의 백제 고토(故土) 지배정책』, 『취리산회맹과 백제』(한국고대학회 엮음), 혜안, pp. 106-107.
 - 2) 拜根興(2002),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 84-86.; 韓昇(2003), 『唐朝對百濟的戰爭: 背景與性質』, 『百濟文化』 3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 145-146.
 - 3) 山尾幸久(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選書, p. 434.
 - 4) 西嶋定生(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p. 451.
 - 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경상북도 편(1987),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면에 밀약 내용을 보면 평양 이남의 범위에 한(限)한다는 점에서 신라의 통일 의지에 한계가 있었으며⁶⁾ 처음부터 신라는 백제 통합에 뜻을 두었을 뿐 삼국통일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⁷⁾고 보기도 한다.

이렇듯, 밀약 관련 기사를 통해 신라·당 전쟁의 책임론으로부터 신라의 통일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정작 ‘648년 김춘추와 당 태종이 직접 만나 백제고지를 둘러싼 논의를 하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밀약 관련 기사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밀약 관련 기사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이어 밀약이 맺어진 시점이 언제인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2. 신라·당 밀약 기사의 실체

671년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답한 「답설인귀서」 가운데 밀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대왕(大王)이 답서에 이르되, 선왕(先王)이 정관 22년(648)에 입조하여 태종 문황제를 뵈고 은칙(恩勅)을 받들었는데 ‘짐이 지금 고려를 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로부터 매번 침입을 받아 편안할 해가 없음을 가련하게 여김이다. 산천토지는 내가 탐하는 바가 아니며 옥백자녀(玉帛子女)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토지는 아울러 너희 신라에

6) 金相鉉(1987), 『新羅 三國統一의 歷史的 意義』,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 408.

7) 김영하(1999),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變化』, 『한국고대사연구』 16; 김영하(2007), 『新羅 中代社會 研究』, 일지사, pp. 118-158.

게 주어 영원히 편안토록 하겠다.’하고 계책을 갖춰 군기(軍期)를 내렸다. 신라 백성이 은칙을 듣고 사람마다 힘을 기르고 집집마다 쓰임을 기다렸는데 대사(大事)를 마치기도 전에 문제(文帝)가 먼저 돌아가셨다. 지금 황제가 천자의 자리에 올라 다시 앞선 은혜를 이으니 자주 사랑을 입어 지난날보다 지나침이 있다. 형제와 아이들은 재물을 품고 자칫 인수를 끄니 총애의 지극함은 옛날에도 없었다. 분골쇄신하여 구치(驅馳)의 쓰임을 다하고자 하며 간뇌도원(肝腦塗原)하여 만분의 하나라도 갚고자 하는 것이다. 현경 5년(660)에 이르러 성상(聖上)이 선지(先志)를 마치지 아니함을 유감으로 여기었다.”⁸⁾

648년 김춘추의 입조에 당 태종은 ‘양국을 평정한 뒤 평양 이남 백제 토지는 신라에게 주어 영원히 편안토록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기사는 『삼국사기』 이후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문헌에 전문이 인용⁹⁾되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밀약과 관련해 최초로 논평을 가한 이는 강재항(姜再恒, 1689~1756)이 아닐까 한다. 그는 『입재유고』(立齋遺稿)에서 당 태종이 신라에게 평양 이남 백제토지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종이 주기로 한 토지를 신라가 차지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취하지 말고 복종하여야 했음을 지적¹⁰⁾하고 있다.

8) 『三國史記』卷第7『新羅本紀』第7文武王下11年, “大王報書云 先王貞觀二十二年 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 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 非我所食 玉帛子女 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垂以計會 賜以軍期 新羅百姓 具聞恩勅 人人畜力 家家待用 大事未終 文帝先崩 今帝踐祚 復繼前恩 頻蒙慈造 有踰往日 兄弟及兒 懷金拖紫 榮寵之極 自古未有 粉身碎骨 望盡驅馳之用 肝腦塗原 仰報萬分之一 至顯慶五年 聖上感先志之未終.”

9) 『東文選』卷57『答唐薛摠管仁貴書』; 『東國通鑑』卷9『新羅紀』文武王11年; 『東國通鑑提綱』卷10『新羅紀』文武王下10年.

10) 『立齋遺稿』卷9『雜著』東史評証, “金春秋入朝 太宗勅麗濟平後 以平壤以南百濟土地并乞你 咸亨元年 將百濟舊地割還 按平壤以南百濟舊壤 太宗許之於前 高宗割之於後 而又以割據爲罪 羅人有辭矣 其不能取 服宜矣.”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동사강목』(東史綱目) 권3 하 무신년(648)조에 「답설인귀서」의 밀약 관련내용만을 발췌한 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여왕 2년조와 김유신 열전에 각각 전해오는 회담내용을 일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신 문무왕 11년조에서는 밀약 내용을 제외한 서신만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회담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 또한 『동사강목』 부권상 「고이」 신라평려제시말조에서는 문무왕과 설인귀가 주고받은 서신을 두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전후 사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릇된 점이 서신을 바른 것으로 삼겠다고 하였다.¹¹⁾ 안정복의 이러한 입장은 국내 전승사료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답설인귀서」를 신라와 당 관계를 살펴보는 데 본격적으로 활용한 이는 장도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는 『국사』(國史)에서 김춘추가 이세민과 협의하여 고구려·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였다.¹²⁾ 이어 『조선역사요령』(朝鮮歷史要領)과 『국사강의』(國史講義)에서는 신라와 당이 밀약을 맺게 된 배경까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¹³⁾

광복 이후, 한국학자들은 별다른 비판없이 밀약 관련 기사를 사실로 믿고 밀약의 배경이나 대당관계를 논의하는 기본자료로 이용하였다.¹⁴⁾ 특히 당 태종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신라의 백제고토 점령의 정당성과 신라·당 전쟁의 원인이 당측의 배신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본 임병태의 견

11) 『東史綱目』附卷上「考異」新羅平麗濟始末, “文武王與薛仁貴書 詳陳前後事情 故並掇取分記於各年之下 而其有訛誤者 皆以此書爲正.”

12) 張道斌(1916), 『國史』; 張道斌(1981), 『汕耘 張道斌 全集』卷1, 時事文化社, p. 55.

13) 張道斌(1924), 『朝鮮歷史要領』, 高麗館, pp. 42-43.; 張道斌(1952), 『國史講義』, 國史院; 張道斌(1981), 『汕耘 張道斌 全集』卷1, 時事文化社, pp. 439-440.

14) 孫晉泰(1948), 『韓民族史概論』, 乙酉文化社, p. 172.; 李丙燾·金載元(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pp. 618-625.; 김철준(1977), 「統一新羅 支配體制의 再整備」,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p. 16.

해¹⁵⁾는 오늘날 우리 학계의 기본적인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학계에 서도 1979년판 『조선전사』에서 밀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의 침략과 배신행위를 밝히는 자료로 이해하였다.¹⁶⁾

한국학계와 달리 밀약 기사의 신빙성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중국학계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서신의 존재 가능성은 높지만 문무왕 자신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변명한 데 지나지 않는다거나¹⁷⁾ 한국측 사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당 태종의 언약은 문무왕이 자기변호를 위해 끌어들이었으며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를 전부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 것¹⁸⁾으로 이해하였다.

배근흥(拜根興)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벌하려 한 전략은 당 고종 이후의 일로 당 태종대 정책과는 관련이 없으며 변속의 지위에 불과한 신라에서 온 김춘추의 청병에 당 태종이 전쟁 뒤의 문제까지 상의했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문무왕이 당에 보낸 세 차례의 사죄사(謝罪使) 가운데 신라가 백제를 공략한 것이 밀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¹⁹⁾으로 보아 밀약의 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승(韓昇)은 당시 당 태종과 김춘추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뿐 아니라 전후 처리 문제를 구두 약정으로 한 것은 빈말이며 약정과 관련된 글귀는 신라인이 지은 것으로 신뢰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또한 양국은 종속관계로 맺어졌으므로 당 태종과 김춘추가 백제 일을 갖고 과분을 논의할 수 없으며 당시 당은 백제를 공격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당의 백제 정도도 국제관계 전략에 따라 진행된 기미정책이었다고 하였다.²⁰⁾

15) 임병태(1977), pp. 525-526.

1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1979), 『조선전사』 4, 과학백과출판사, pp. 227-228, 239.

17) 黃約瑟(1995), 『薛仁貴』, 西北大學出版社, pp. 140-144.; 拜根興(2002), p. 84 재인용.

18) 王小甫(2007), 「中韓關係視野下的《三國史記》撰作」, 『韓國學論文集』 2007-2, pp. 1-2.

19) 拜根興(2002), pp. 84-86.

20) 韓昇(2003), pp. 145-146.

한국학계에서도 중국학계의 문제제기에 따라 밀약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반론을 제기하였다. 박현숙은 두 통의 서신이 당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겠지만 신라로서는 중대한 일이었기에 기록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았다.²¹⁾ 노태돈은 734년 당이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 영토로 인정하는 조처를 볼 때, 밀약에 관한 기록이 당 조정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²²⁾으로 이해하였다. 주보돈은 구체성을 띤 내용이라는 점, 출사(出師)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명분과 조치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점, 신라로서는 구두약속으로 그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승계되었을 공산이 크다²³⁾고 하였다.

한편, 중국측 문헌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신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존·씨·재미슨은 이러한 논란이 일기 전, 한중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당 사서의 불완전하고도 부정확한 기사 취급을 지적하면서 7세기 중후반 신라·당 관계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삼국사기』의 고유한 자료에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밀약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당 고종이 부친의 서약을 대단치 않게 여기자, 신라가 조치를 취하였다²⁴⁾고 보았다. 최근에 들어와 중국학자인 송성유(宋成有)도 중국측 사료를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답설인귀서』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문무왕의 회신 또한 사리가 분명한 사실로 인식하였다.²⁵⁾

21) 박현숙(2002).

22) 노태돈(2009), pp. 30-31.

23) 주보돈(2011), 「7世紀 羅唐關係의 始末」, 『嶺南學』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p. 153-155.

24) 존·씨·재미슨(1969), 「羅唐同盟의 瓦解-韓中記事 取捨의 比較-」, 『歷史學報』 44, 역사학회.

25) 宋成有(2012), 「中國史籍編纂與『三國史記』」, 『新羅學國際學術大會論文集』 6, pp. 183-184.

그동안 밀약 기사의 사실성 여부를 논할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삼국사기』 외에 밀약 내용을 전해주는 기사가 있느냐는 데 있다. 중국학계에서 서신의 존재 가능성은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중국측 문헌에서 밀약 관련 기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외에 관련 내용을 전해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밀약 기사의 사실성에 대한 의문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유의해 볼만한 사료가 『구당서』(舊唐書)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b. “도침(道琛) 등이 이에 인원(仁願)의 포위를 풀며 임존성으로 물러나 지켰다. 신라 병사가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때는 용삭 원년(661) 3월이었다. 당시 도침은 스스로를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불렀으며 복신(福信)은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자칭하였다. 반란의 무리를 꺾어 모으니 그 세가 더욱 커졌다. 인궤(仁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돌자하니 대당(大唐)이 신라와 맹세하기를 백제의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인 뒤에 나라를 신라에게 준다고 하였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싸워서 죽는 것만 같겠는가! 이런 까닭에 무리를 모아 지킬 뿐이다.’ 인궤가 글을 지어 화복(禍福)에 대해 갖추어 진술하고 사람을 보내어 꺾었다.”²⁶⁾

661년 백제부흥군을 이끌던 도침과 복신은 유인궤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이 백제인을 모두 죽인 뒤 나라를 신라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였다. 즉, 도침과 복신의 입을 통해 신라와 당이 밀약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인궤는 서신을 작성하여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서신의 내용 가운데 밀약과 관련한 언급이

26) 『舊唐書』卷199上「百濟」, “道琛等乃釋仁願之圍 退保任存城 新羅兵士 以糧盡引還 時龍朔元年三月也 於時道琛自稱領軍將軍 福信自稱霜岑將軍 招誘叛亡 其勢益張 使告仁軌曰 聞大唐與新羅約誓 百濟無間老少 一切殺之 然後以國付新羅 與其受死 豈若戰亡 所以聚結自固守耳 仁軌作書 具陳禍福 遣使諭之.”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도침이 유인궤에게 사신을 보낸 시점이 661년 3월 이후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열왕은 도침과 유인궤 사이 벌어졌던 이러한 사신왕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당 고종의 조서를 받고 김흠(金欽)을 시켜 유인궤 군대를 구하게 하였다.²⁷⁾ 무열왕이 661년 6월 죽음을 고려할 때, 도침의 백제부흥군은 아무리 늦더라도 무열왕이 살아있었던 661년 3월 이전에는 신라와 당이 밀약을 맺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승이 문무왕이 꾸며낸 근거로 든 ‘이때 당 태종과 김춘추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논리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밀약 내용이 어떻게 백제부흥군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671년 문무왕이 백제고지 점령을 정당화 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본 중국학계의 견해가 그릇되었음은 분명해졌다. 661년에는 이미 밀약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다음으로 중국학계에서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벌하려 한 전략 [이하 백제 선공 전략(百濟先攻戰略)]은 당 고종 이후의 일이므로 당 태종이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밀약의 내용은 꾸며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학계의 여러 학자들도 신라의 요청에 따라 당 고종대 백제 선공 전략을 취하였다고 보고 있지만²⁸⁾ 밀약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당 고종대 백제 선공 전략을 실행했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백제 선공 전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시점이 언제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당 태종은 대외적으로 대고구려전(對高句麗戰)에 많은

27) 『三國史記』 卷 第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28) 申采浩 著·李萬烈 註釋(1983), 『註釋 朝鮮上古史(下)』, 형설출판사, p. 470, 488.; 李丙燾·金載元(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pp. 506-507.; 李昊榮(1997),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pp. 180-184.

관심을 쏟고 있었으므로 백제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당 태종의 백제 선공 전략도 고구려원정의 실패 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²⁹⁾ 사실, 백제에 대한 당의 입장은 64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하였다. 643년 9월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청병을 요청하였으며, 당 태종이 세 가지 계책을 내는 가운데 백제 공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는 당 태종이 백제 공략을 하나의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⁰⁾

당 태종은 645년 고구려를 침입하기 직전 백제에 조서를 보내어 출병을 요구하였지만³¹⁾ 백제는 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백제는 오히려 신라가 당의 고구려침입에 맞춰 군대를 내었을 때, 신라를 공격하였다.³²⁾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관계(連和關係)에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의 이러한 모습은 당 태종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것이다.

그동안 고구려 원정을 위한 당 태종의 기본전략은 속전속결이었으며 백제와 신라의 활용여부가 성공의 열쇠였다. 하지만 당은 잇따른 원정 실패로 647년 2월부터는 소규모 부대를 동원하여 자주 공격함으로써 고구려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였다.³³⁾ 이런 가운데 백제·신라 활용 전략을 백제 선공 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김춘추의 청병에 당 태종이 소정방으로 하

29) 孫晉泰(1948), pp. 166-167.; 李基白·李基東(1982), p. 291. 주보돈(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 2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50.; 노태돈(2009), pp. 139-142.

30) 『冊府元龜』 卷991 外臣部36 備禦 第4, “百濟國負海之險 不修兵械 男女分雜 好相宴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衝枚汎海 直襲其地.” 노태돈이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노태돈(2009), p. 142.

31)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一首」.

32) 『三國史記』 卷 第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4年.

33) 김진한(2011),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高句麗渤海研究』 39, 고구려발해학회, pp. 107-110.

여금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하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³⁴⁾ 『삼국유사』 진덕왕조에 달린 원주(原註)에도 “일본(一本)에는 춘추공을 사신으로 삼아 청병하였는데 태종이 기뻐하며 소정방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³⁵⁾ 여기서 말한 ‘일본’(一本)이 『삼국사기』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 『동국통감』을 비롯한 각종 사서와 구한말의 교과서³⁶⁾에도 김춘추의 청병에 당 태종이 소정방을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사서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640년대 소정방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미 『삼국유사』의 찬자도 소정방이 오는 것은 660년이라고 비판하였다. 당 태종이 소정방을 시켜 백제를 공격하였는지의 사실성 여부는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당 태종이 백제 원정에 대한 사항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기사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신라의 끈질긴 요청에도 당이 백제를 침략할 계획을 미루어 온 것은 고구려를 직접 침략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³⁷⁾ 뒤이어 당 태종이 649년 고구려원정군을 파하라고 유명한 뒤 죽음을 맞이하는 등 당 안팎의 정세변화로 대외원정은 더욱 여의치 않게 되었다. 당 태종이 죽은 뒤, 곧이어 김법민이 당에 표문을 올리며 고구려·백제의 침입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고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당

34) 『三國史記』 卷 第41 「金庾信」上, “帝曰誠君子之國也 乃詔許 勅將軍蘇定方 以師二十萬徂征百濟…春秋入唐請得兵二十萬來.”

35) 『三國遺事』 「紀異」 第1 眞德王, “第二十八 眞德女王即位 自製太平歌 織綿爲紋 命使往唐獻之 [一本命春秋公 爲使 往仍請兵 太宗嘉之 許蘇定方云云者 皆謬矣…].”

36) 玄采(1899), 『東國歷史』;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14, 아세아문화사, pp. 112-113.; 國民教育會(1906), 『大東歷史略』; 헬버트·吳聖根(1908), 『대한력서』. 이상은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18, 아세아문화사에 수록.

37) 李基白·李基東(1982), p. 291.

고종은 백제에게 ‘만일 전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울 것’임을 경고하였다.³⁸⁾ 당 고종의 백제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당 태종의 정책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 태종이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밀약의 내용을 꾸며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변속의 지위에 불과한 신라가 당과 함께 백제 분할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민족 중심의 변속이론을 가지고 마치 신라가 당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변속국에 불과하여 밀약을 맺을 자격이 없었다고 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신라와 당의 관계는 형식상 조공과 책봉을 통해 관계가 설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양국관계는 규정되었다. 김춘추의 입당(入唐) 역시 대고구려사행의 실패와 당시 백제의 침략에 따라 곤궁한 처지에 빠진 신라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문무왕이 당에 보낸 세 차례의 사죄사 가운데 신라가 백제를 공략한 것이 밀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죄사 가운데 밀약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이 밀약 자체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밖에 중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구두약정으로 한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약정과 관련한 글귀를 신라인이 지었기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박현숙이 언급한대로 신라입장에서는 중대한 일이었기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다³⁹⁾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라가 당 세력을 쫓아내고 지역적으로 대동강으로부터 원산만에 머물렀던 것은 평양 이남까지라고 언질(言質)하였던 당 태종의 약속을 위반하지 않으려

38) 『舊唐書』卷199上『百濟傳』, “王若不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麗 不許遠相救恤 高麗若不承命 卽令契丹諸蕃渡遼澤入抄掠 王可深思朕言 自求多福 審圖良策 無貽後悔.”

39) 박현숙(2002).

했던'⁴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3. 신라·당 밀약의 시점

앞선 검토를 통해 신라와 당이 밀약을 맺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밀약을 맺은 시점은 언제일까? 이를 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김춘추의 입당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김춘추의 입당시기에 대해서는 『구당서』·『자치통감』 등에 648년 12월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별다른 의문없이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권덕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김춘추의 입당시기도 『삼국사기』 찬자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수(改修)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⁴¹⁾

먼저, 649년 정월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를 시행하였다⁴²⁾고 나오므로 여정을 고려할 때, 김춘추가 648년 겨울이나 12월에 입조하였다가 장복(章服) 개정에 대한 당 태종의 허락을 얻어 649년 정월 이전에 신라에 돌아오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책부원구』에는 김춘추 일행이 649년 2월에 환국하였음⁴³⁾을 전하고 있다. 무전행남(武田幸男)은 이를 근거로 ‘정월(正月)은 시복(始服)에 이끌려 범한 조작(造作)’이라고 보았다.⁴⁴⁾ 또한 색복(色服)조에도 648년 김춘추가 입당하여 허락을 얻어 돌아와 시행하였다⁴⁵⁾고 할 뿐, 구체적인 달은 기록하지 않았다.

40) 李丙燾·金載元(1959), pp. 618-625.

41) 권덕영(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일조각, pp. 26-31.; 권덕영(2013), 『三國史記』 신라본기역주 後記, 『新羅史學報』 27, pp. 21-25.

42) 『三國史記』 卷 第5 『新羅本紀』 第5 眞德王 3年,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43) 『冊府元龜』 卷109 『帝王部』 宴享1, “貞觀二十三年二月 癸巳 特進新羅王金春秋還國 令三品以上宴餞之 優禮甚備.”

44) 武田幸男(1974), 『新羅·法興王代之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pp. 106-107.

사실 ‘정월’(正月)을 무전행남의 견해대로 조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춘추가 입당하여 당 태종과 만나 장복(章服)을 고쳐 당의 제도 따르기를 청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복식 개정에 관한 건은 김춘추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입당 이전에 이미 조율을 마쳤을 것이다.⁴⁶⁾ 그렇다면, 당의 형식적인 추인에 앞서 신라가 649년 정월 상징적인 조치로 먼저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권덕영은 김인문묘비문에 글자가 탈락되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김춘추의 견당 관련 기사가 남아 있으며 647년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당대 자료라는 점에서 금석문의 가치에 좀 더 높은 신빙성을 두었다. 하지만 금석문 자료를 제외하고 『구당서』·『신당서』·『자치통감』·『삼국사기』 등 문헌에는 김춘추의 입당시기에 대해 모두 648년이나 648년 12월이라고 명시하였다.⁴⁷⁾ 김춘추의 경우처럼 입국과 환국날짜가 모두 알려진 사행(使行)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금석문에 우선적인 가치를 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김유신열전의 백제 전투기사에 대한 대비를 통해 김춘추의 입당시기는 648년 겨울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즉, 김유신열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는 ① 김춘추와 당 태종의 대화 ② 신라의 대백제전투 ③ 김춘추와 김유신의 재회로 이루어져 있다. 권덕영은 이 기사를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이해하면서 김춘추가 떠난 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가 백제와 옥문곡(玉門谷) 전투를 치렀다고 한다. 『백제본기』에는 이 전투

45) 『三國史記』 卷 第33 『雜志』 2 色服.

46) 『聖住寺朗慧和尚塔碑』에서는 “論曰…則昔武烈大王爲 乙黎時, 爲屠獫狁 乞師計, 將真德女君命, 陞觀 昭陵皇帝 面陳願奉正朔 易服章 天子嘉許 庭賜華裝…”라 하여 진덕여왕의 명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상현(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p. 41.

47) 단, 『太平實宇記』에서는 647년 김춘추가 來朝한 것으로 나온다(『太平實宇記』 卷 174 東夷3 新羅, “唐貞觀二十一年 其王遣金春秋來朝…”).

가 648년 4월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⁴⁸⁾되어 있다. 따라서 김춘추는 648년 4월 이전에 당으로 떠났으며, 그 시기는 김인문묘비문에 따라 647년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김유신열전에는 신라의 대백제전투와 그에 따른 성과를 적시한 뒤, ‘春秋入唐 請得兵二十萬來…’라고 이어서 적고 있다. 즉, 보기에 따라 김춘추가 신라의 대백제전투를 모두 확인한 뒤 입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⁴⁹⁾ 이를 통해 볼 때, 648년 4월 이전 김춘추가 당으로 떠났던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춘추의 입당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에 제기된 근거보다도 아래 기사를 주목해보고 싶다.

c. “22년 진덕(眞德)이 그 아우인 국상(國相) 이찬간(伊贊干) 김춘추 및 그 아들 문왕(文王)을 보내어 내조(來朝)하였다. 조서를 내려 춘추를 특진(特進)으로 삼고 문왕을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 춘추가 국학에 나아가 석전(釋奠) 및 강론(講論) 참관을 청하였다. 태종이 직접 지은 온탕(溫湯) 및 진사비(晉祠碑)와 새로 편찬한 진서(晉書)를 내렸다.…”⁵⁰⁾

위 기사에 따르면, 당 태종은 김춘추를 만나 자신이 직접 지은 온탕비(溫湯碑)·진사비(晉祠碑) 및 신찬(新撰) 『진서』(晉書)를 주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옥해』(玉海)에는 ‘당 태종이 646년 정월에 행차하여 진사비를 세우고 글을 지어 친히 돌에 썼다. … 648년 정월 무술에 온탕으로 갔으며 계묘에 온탕비를 직접 지어

48) 『三國史記』 卷 第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8年.

49) 안정복도 『東史綱目』 卷3 下 戊申年(648)조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김유신의 대백제전투기사를 싣고 김춘추의 입당(入唐)기사를 뒤이어 정리하였다.

50) 『舊唐書』 卷199上 「新羅」, “二十二年 眞德遣其弟國相伊贊干金春秋及其子文王來朝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 武衛將軍 春秋請詣國學觀釋奠及講論 太宗因賜以所制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군신과 왕공들에게 보였다'고 한다.⁵¹⁾ 『구당서』에 보이는 '정월 무술에 온탕에 행차하여 무신일에 돌아왔다'는 기록⁵²⁾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태종이 온탕비를 직접 지은 것은 648년 정월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춘추에게 이를 준 것은 648년 정월 이후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새로 지은 『진서』의 편찬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신찬 『진서』가 완성된 연도에 대해서는 크게 646년설과 648년설로 나뉜다. 『구당서』 방현령전에는 646년 『진서』가 완성된 것처럼 전하고 있다.⁵³⁾ 이에 644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646년에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⁵⁴⁾

그러나 『당회요』에는 '646년 윤3월 4일에 조서를 내려 『진서』의 경찬(更撰)을 명한 것'⁵⁵⁾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대조령집』에 실린 「수진서조」(修晉書詔)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⁵⁶⁾ 즉, 646년에 다시 편찬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편찬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책임자였던 방현령이 사망한 648년 7월 이전으로 보는 견해⁵⁷⁾와 편수참여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하여 648년 9월로 보기도 한다.⁵⁸⁾

51) 『玉海』卷28 「聖文」唐太宗御製, “唐太宗 貞觀…二十年 正月 幸晉祠立碑製文 親書於石…二十二年 正月戊戌 幸溫湯 癸卯 御製溫湯碑 示群臣王公 咸曰 天文雅奧超象繫之 表神筆自書勒溫井之側.”

52) 『舊唐書』卷20 本紀 第3 「太宗李世民」下, “二十二年 春正月…戊戌 幸溫湯 戊申 還宮.”

53) 『舊唐書』卷150 列傳 第16 「房玄齡」, “尋與中書侍郎褚遂良受詔重撰晉書…至二十年 書成 凡一百三十卷 詔藏于祕府 頒賜加級各有差.”

54) 柴德廣(1982), 『史籍舉要』, 北京出版社, pp. 44-46.

55) 『唐會要』卷63 「史館」上 修前代史, “(貞觀)二十年 閏三月四日 詔令修史所更撰晉書…”

56) 『唐大詔令集』卷81 「政事」, 經史 修晉書詔.

57) 李培棟(1984), 「《晉書》研究(上)」,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4-3, p. 63.; 王龍華(2009), 「《晉書》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p. 18.

58) 范市兵(2010), 「《晉書》的編纂及其文獻成就」,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pp. 32-33.

『진서』의 편찬완료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책부원구』에서는 646년 『진서』의 수찬을 명하고 몇 해 뒤 완성되었다⁵⁹⁾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648년 중후반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⁰⁾ 따라서 647년에 김춘추가 입당하였다면 「온탕비」나 『진서』를 받을 수가 없다.

김춘추의 입당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a기사를 주목해보고 싶다. 이 기사에는 ‘신라에 군기를 내렸으며 신라 백성이 힘을 기르고 쓰임을 기다렸으나 대사를 마치기도 전에 당 태종이 먼저 죽고 말았다’는 대목이 있다. 주지하듯, 당은 645년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난 뒤, 소규모 부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였으며 649년에는 30만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일시에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⁶¹⁾

만일 김춘추가 647년 겨울에 입당하여 당과 ‘군기’(軍期)까지 잡았다고 한다면 648년에는 신라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647년 겨울부터 648년 12월 사이의 기록에는 신라의 대응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료의 멸실이라기보다는 김춘추가 당에 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과 ‘군기’를 잡고 1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당이 고구려원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648년 12월 김춘추가 입당하여 ‘군기’를 잡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당 태종이 사망함으로써 두 나라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상으로 김춘추의 입당시기와 관련한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648년 12월에 갔다고 한 기존 문헌기록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답

59) 『冊府元龜』 卷554 『國史部』 恩獎.

60) 中華書局에서 2008년에 출판한 『晉書』에 대한 설명을 보면 646년 편수를 시작하여 648년에 완성된 것으로 쓰고 있다.

61)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 下之上 貞觀 22年 6月.

설인귀서」의 김춘추 입당시기를 『삼국사기』 편찬자가 개수(改修)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춘추는 648년 12월에 입당하여 당 태종을 만난 뒤, 밀약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11년조에 실린 「답설인귀서」는 국내에 독자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외교문서로써 신라의 대당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특히 「답설인귀서」에 전하는 김춘추와 당 태종이 맺은 밀약 내용은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의 정당성과 신라·당 전쟁의 원인이 당의 약속위반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밀약내용에 신뢰를 두는 한국학계와 달리 중국이나 일본학계에서는 사료로 인용하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특히, 중국학계에서는 당 태종이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춘추의 청병에 전쟁 이후의 문제까지 상의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구나 밀약과 관련한 내용이 중국측 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며, 당의 고구려 및 백제 정토는 국제관계전략에 따라 진행된 기미정책이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밀약관련 내용은 문무왕이 자기 변호를 위해 꾸며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학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밀약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점, 출사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명분과 조치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점, 『삼국사기』 이외의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밀약 관련 기사의 사실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734년 당이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 영토로 인정하는 조치를 볼 때 밀약에 관한 기록이 당 조정에 남아 있었다고 보는 등 일부 반론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비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국학계가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구당서』에 밀약 내용을 뒷받침해 줄만한 사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도침이 유인궤에게 보낸 사행을 통해 늦어도 661년 무렵에는 신라와 당이 밀약을 맺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벌하려 한 전략은 당 태종대 세워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중국학계의 주장처럼 671년에 문무왕이 백제고지 점령을 정당화 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밀약 시점과 관련해 647년에 김춘추가 사행을 간 것으로 보고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김춘추의 입당시기도 『삼국사기』 찬자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당 태종이 648년에 지은 온탕비나 새로 편찬된 『진서』를 주었음을 고려할 때, 입당시기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김춘추는 648년 12월에 입당하여 당 태종을 만난 뒤, 밀약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자 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文選』, 『東國通鑑』, 『東國通鑑提綱』, 『立齋遺稿』, 『東史綱目』, 『晉書』, 『舊唐書』, 『冊府元龜』, 『玉海』, 『唐會要』, 『唐大詔令集』, 『太平寰宇記』, 『資治通鑑』, 『聖住寺朗慧和尚塔碑』,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一首』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14, 아세아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18, 아세아문화사.

【논 저】

국민교육회(1906), 『大東歷史略』.

권덕영(2013), 「『三國史記』신라본기 역주 後記」, 『新羅史學報』 27, 신라사학회.
_____ (1997), 『古代韓中外交史-遺唐使研究』, 일조각.

김상현(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_____ (1987), 「新羅 三國統一의 歷史的 意義」,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김영관(2010), 「취리산혁명과 당의 백제 고토(故土) 지배정책」, 『취리산혁명과 백제』(한국고대학회 엮음), 해안.

김영하(2007), 『新羅 中代社會 研究』, 일지사.

_____ (1988),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한길역사강좌 12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김진한(2011),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高句麗渤海研究』 39, 고구려발해학회.

김철준(1977), 「統一新羅 支配體制의 再整備」,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노태돈(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경상북도 편(1987),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박현숙(2002),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拜根興(2002),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손진태(1948), 『韓國民族史概論』, 乙酉文化社.
- 申采浩 著·李萬烈 註釋(1983), 『註釋 朝鮮上古史(下)』, 형설출판사.
- 李基白·李基東(1982),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 李丙燾·金載元(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 李昊榮(2007), 『月山 李昊榮의 韓國史學 遍歷』, 書景文化社.
- _____(1997),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 임병태(1977), 『新羅의 三國統一』,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張道斌(1981), 『汕耘 張道斌 全集』 卷1, 時事文化社.
- _____(1952), 『國史講義』, 國史院.
- _____(1924), 『朝鮮歷史要領』, 高麗館.
- _____(1916), 『國史』.
- 존·씨·재미슨(1969), 『羅唐同盟의 瓦解-韓中記事 取舍의 比較-』, 『歷史學報』 44, 역사학회.
- 주보돈(2011), 『7世紀 羅唐關係의 始末』, 『嶺南學』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_____(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 2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힐버트·吳聖根(1908), 『대한력스』.
- 玄采(1899), 『東國歷史』.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1979), 『조선전사』 4, 과학백과출판사.
- 武田幸男(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 西嶋定生(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 山尾幸久(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選書.
- 柴德賡(1982), 『史籍學要』, 北京出版社.
- 李培棟(1984), 『《晉書》研究(上)』,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4-3.
- 黃約瑟(1995), 『薛仁貴』, 西北大學出版社.
- 韓昇(2003), 『唐朝對百濟的戰爭: 背景與性質』, 『百濟文化』 3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王小甫(2007), 『中韓關係視野下的《三國史記》撰作』, 『韓國學論文集』 2007-2.
- 王龍華(2009), 『《晉書》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范市兵(2010), 『《晉書》的編纂及其文獻成就』,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김진한 /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275

宋成有(2012), 「中國史籍編纂與『三國史記』」, 『新羅學國際學術大會論文集』 6.

원고 접수일: 2013년 12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4일

ABSTRACT

A Study on the Authenticity of the Secret Agreement
between Silla and Tang in *Dapseolinguiso*

Kim, Jin-Han*

In the 『Dapseolinguiso』(答薛仁貴書) included in the 『Samguk-Sagi (三國史記)』 a secret agreement between Kim Chun Chu (金春秋) and Tang Tai-tsung (太宗) is mentioned. Korean scholars make use of the document to validate Silla's occupation of Baekjae (百濟) territory and to demonstrate that the cause of the Silla-Tang war was a breach of the agreement by Tang.

However, Chinese scholars maintain that the secret agreement is not recorded in their history books and that the document was fabricated by King Mun-Mu (文武王) in order to defend himself.

I have examined the 『Gu-Tang-Seo』 (舊唐書) and have found historical records which support the authenticity of the secret agreement. Namely, it is certainly clear that the Baekjae Restoration Army (百濟復興軍)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 secret agreement in A.D. 661 at the latest — this fact is evident in the negotiations which took place between a Baekjae envoy sent by Dochim (道琛) and Yu-ingue (劉仁軌) the Tang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eneral.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date of entry into Tang by Kim Chun Chu was A.D 647. But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ate of entry into Tang was A.D 647.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ang Tai-tsung gave the epigraph of On-Tang (溫湯) and the new 『Chin-Su』 (晉書) to Kim Chun Chu in A.D 648.

Therefore, I regard it as undeniable fact that there was a secret agreement between Silla and Tang after Kim Chun Chu entered into Tang in December, A.D 648.

